

권사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주일 예배 후 지친 몸이지만 우리 권사회 104명은 버스에 올라 진빛골 사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에게 물러오는 많은 일들을 뒤로 한 채...

잔설이 군데군데 누워있고, 얼음장 밑으로 시냇물 소리를 줄 줄 내며, 산골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요섭 목사님 인도로 찬양과 함께 여는 예배를 끝내고 식당으로 내려오니 어느새 목사님들께서 도착하시고 정겹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식사 후에 담임목사님의 말씀(살전5:16-18)을 들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이란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며, 영적인 의무나 내 신앙의 자람이란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인식하며 기도해야함을 말씀하셨고, 또 항상 기쁨이란 무엇이든 귀하게 보고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다가가심을 뜻하며, 그 때에 죄로 파괴된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권사회 수련회를 통해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권사들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목사님의 아름다운 특송 이후에 교구별로 모여서 교구 목사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부

권사회 수련회 _ 2월 7일~8일, 진빛골 사랑의 집(경기도 광주)

임하신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서로 인사하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술 속의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2부 순서로 정요섭 목사님께서 '빛처럼 빛나는 사람'이란 주제 아래 '더 잘 듣는 권사란?', '하나님께서 권사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더욱 더 권사 되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권사가 되기 위해선?'이란 질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권사의 멋과 맛이 어우러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나사는 권사가 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다짐하며, 아름다운 성김의 본을 보이는 권사가 되길 바라며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날이 뜨는 동안 새벽을 깨울 때 정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진희 권사님이 인도하는 신나는 아침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깨웠습니다. 도토리 수제비국으로 맛있는 아침을 다잡취처럼 먹은 후에, 이회숙 권사님의 해박한 지식이 담긴 특강이 '우리가 도우려나'란 주제로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도왔던 스가나처럼 청년의 때에 이른 주님의 교회를 돕기 위해 에스라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또한 순행하며 에스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노력하여처럼 올며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권사들도 듣는 자가 되어 총체적이고 통전적이며 온전한 신앙을 갖자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닫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층 더 친밀해진 서로를 느끼며 권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기쁨의 세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순희 권사)

장신대 졸업예배 본교회에서 드려져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우리교회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제 103회 졸업감사예배가 드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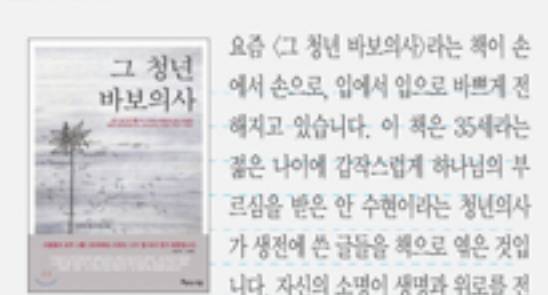
광장동에 위치한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대학교이다. 1901년에 세워져 현재까지 수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교인들의 신앙을 지지하는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우리 교회의 박원호 목사님은 예비목회자들에게 로마서 14장 17~18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와 목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소망에 자신의 소망을 맞추며 목회자에게의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설교를 마쳤다.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했다.



이 예배에 참석한 김시은(신학대학원 진학예정)씨는 "교인들의 반은 여성이지만 그에 비해 여성 목회자가 무척이나 적습니다. 이에 관해서 여성들의 입장 대면 등 그에 관련하여 어떤 생각이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물론 과거엔 교회에서 여자의 입지가 무척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에는 여자라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남성들이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했다.

(신형섭기자)



요즘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이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 수현이라는 청년의사가 생전에 쓴 글들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이 생명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깨달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며 자신이 머문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흔적(stigma)을 남겼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성실하게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도로 심령으로 양육 등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 주었음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견과 애정을 갖고 있던 OCM, 클래식음악, 책들을 필요한 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책 소개를 위해 이 책을 두 번째 읽기 시작한 곳은 공교롭게도 종합병원의 외국 열 치료실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세가 위중해진 저의 사이미년의 병상을 지키며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책 내용과 제 앞에 보이는 의국의 생생한 모습이 오버랩되어 눈 앞에 안 수현형제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수현형제가 병원에서 베푼 의술과 사랑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수현형제를 무척이나 지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책을 읽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책을 나누게 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수현형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책을 사서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박윤정 기자)

함즐함울에서
기사를 모집합니다.
하태원 편집장 HP_019.313.3073

|오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김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통 권 제 259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2월 21일

사순절 새벽기도회,
기도의복물 쏟아지다!

2월 17일 제의 수요일(Ash Wednesday)을 기점으로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신약성경을 통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동안 날마다 정해진 본문을 통독함으로 신약성경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금식과 회개를 바뻐한 자기절제의 영적훈련과정이었습니. 이러한 영적인 훈련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고 참된 신자로 거듭나게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개혁교회의 전통은 말씀묵상과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에 대한 묵상을 도와주는 경건서적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방식들이 그 나름대로 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통독은 성경전체를 반복하여 읽는 것으로 성경텍스트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성경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그대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사순절 동안 신약을 통독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독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그 현상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 주

님의 고난에 담긴 의미와 생명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한 성경통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깨달음에 대한 실천이 동반될 때 온전한 성경통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통독과 함께 이어지는 뜨거운 기도는 다시금 주님의 교회에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번 사순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평송 목사)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로 엠 나 무



| 작은 내 안에... |

열심을 내었던 일들이 나의 욕심일 때가 많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포장한 상자 안에 있던 것은,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속이 상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으시기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2:6-8)

작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주님! 제게 주어진 현실을 인내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혜숙 기자)

늘푸른대학 제2기 모집안내

입학 대 상 : 만 65세 이상 주님의교회 교인 및 지역주민 (제1기 수료자 재등록 환영)
학사 기간 : 3.9 - 12.7(화) 10:30~14:00 (30 주전)
1학기 : 3.9 - 6.29 (17 주전)
2학기 : 9.7 - 12.7 (13 주전)
등록금 : 3만원(1년 30주전, 학생회비 : 2만원(별도))
●입학원서 제출 시, 특별활동반 2개를 지망해 주세요
개강 : 2010. 3. 9 (화) 오전 10:30

* 문의_ 박동수 안수집사 010-7140-3095 / 정의영 집사 011-384-0305

사순절의 의미와 적용 / 추천도서 2면
활동부서탐방 / 화제의인터뷰 3면
권사회수련회 / 장신대졸업식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사순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자

사순절의 유래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고난, 부활, 재림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력상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거슬러 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등장하는 여정의 절기이다. 사순절의 어원은 '봄'에서 비롯된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 'Lenz'와 함께 '봄'을 지칭하는 말이다. 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계절이며 만물이 소생하는 때이기도 하다.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은 부활절이 다가오면 특별한 기간에 구예를 받지 않고 금식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누렸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자 통합적인 축제로서 이어져오던 부활절기가 4세기에 이르러 고난주장과 부활절을 분리하여 기념하게 된다. 지금의 40일인 사순절의 기간이 자리 잡은 것은 A.D.325년 니케아 회의(Council of Nicaea)에서였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 '40일간의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 '테살코스테'를 번역하여 사순절(τεσσαρτησήμερον)이라는 평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사순절은 재림 이마에 비르며 회개하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 시작되며, 사순절 기간 동안은 전통적으로 회개, 금식, 금욕, 구제, 믿음묵상을 비롯한 자기정제와 훈련이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사순절의 본래적 의미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대한 인위적인 포기나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순절의 아남네시스

사순절(Lent)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기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남네시스'는 그리스도께서 참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락과 포도주를 나누어주시며 '이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확히 재 사용하신 단어이다. 이 단어는 단순한 생각의 필요를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인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사건을 의미한다. 즉 '사순절의 아남네시스'란 40일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버리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그 고난에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동참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표현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롬 6:5)

사순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자

사순절 아남네시스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실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가능하다. 훌륭한 연기자들은 드라마 속 역할을 연기할 때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그 사람이 되어 그 삶을 드라마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기에 훌륭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던 한 동안 그 삶 자체가 우물레 진다. 반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면 그의 삶 또한 웃음이 가득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무명의 제자가 되어 2000년 전 그 날로 돌아가자. 그 현장을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40일의 삶을 살아보자. 당시 비결했던 제자들은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되어 다시 그 현장 속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가능할 것이다.

사순절 드라마의 본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부르신다. '나'라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어떤 사순절도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순절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신다. 어떤 사순절은 특별히 신약성경봉독을 중심으로 하는 새벽기도회와 성금요일예배, 수난탄타가 기획되어 있다. 이 모든 행사가 주인공이 되어 보자.

머리로부터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기독교를 받들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 날의 감회는 빛바랜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2000년 전 그날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카메라가 되어 오늘도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순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자.

- 목회실

사순절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목회실 추천)

•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존 맥커시 /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과 가장 수치스런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 우리는 그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는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 했으며 그 죽음은 오늘 우리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비극적인 것 같으나 영광스런 그 죽음의 비밀을 밝힌다.



•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맥스 루카도 / 두란노

군인들이 밧은 철이 나의 못에 한다. 가사의 보복한 굴이 내 머리를 찌른다. 내 속옷을 꿰고 들어온다. 창, 흉, 창!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회를 붙이고 조물한다. 어느 날이 될지 십자가는 땅에 눕히고 병사의 창이 나의 일구리를 찌르고 들어온다. 물과 피는 쏟아진다. 아, 주님!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헬리 볼케르비 / 생명의 말씀사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지신 사물이 아니다. 그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길버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십자가는 당신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줄 능력을 가지고 당신을 부른다. 십자가를 경험하라. 오늘 여기서...



• 십자가의 길 크리스티아 매케의 로즈 / 예수전도단

이 책은 묵상, 읽기, 반응, 기도, 내 가지 단계를 통해 모든 대화와 사건들을 현상에서 보고 듣는 것처럼 절고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우리 고통과 수난에 동참해 보자. 십자가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고, 그분의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가슴으로 깨닫는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 고난받는 그리스도 F.W. 크룸마허 / 지평사

크룸마허(F.W. Krummacker)의 대표작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 묵상책 중에서도 전후후무한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이 어떻게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감동하게 시켜주었다는 데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마음에 영적 감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영성을 의심해 볼만하다.



• 마틴로이드존슨의 십자가 마틴 로이드 존슨 / 두란노

너무나도 젊은 나이로 그의 앞날에 많은 것을 기대하게 했었던 마틴 로이드존슨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존슨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또 하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은 서로 불로 듣는 때는 전쟁 속과 사는 민간인에게 더욱 더 절실하게 필요한 죽음이었습니다. 참말로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그 죽음은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활동부서탐방: 제4여전도회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배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피로 얻어주신 4여전도회(1956~1959년)는 올해 임원을 맡은 문희주 회장, 최은경 부회장, 오성자 총무를 비롯하여 3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늘 낮은 곳을 찾아 일하신 주님의 행보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소환된 곳을 찾아 봉사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우리는 '보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 남이 기꺼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에 따라, 대월 정기적인 회례회를 통하여 회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월례회 자리를 통하여 회원들 간의 끈끈한 정과 단합을 도모하였으며, 봉사활동에 임하는 데 있어 협동성과 승진수반의 자세로 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월례회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봉사활동에 대한 자기평가와 앞으로의 봉사계획과 관련하여 회원들 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임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수석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편찬봉사를 하고 있다.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맛있는 반찬도 곁머리하시지만, 늘 쓸쓸하게 지내던 당신들에게 발동부가 생긴 것에 더욱 기뻐하시곤 한다. 어르신들에게 봉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진정한 봉사는 단지 물질적인 배움이 전부라 아니라, 마음에서 전해지는 따뜻한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곤 한다. 또한 우리는 매월 셋째 주일마다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사봉사를 하고 있다. 예배 후에는 소모임으로 참여하며 그 분들의 활동했던 발목 과정과 가족들과 헤어져 마음 아파하는 그들의 고난의 일들을 위로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앞날을 소망하는 시간을 갖는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은혜로운 성경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고 있다.

자식은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먹고 자란다

사법고시 합격한 김지은 자매의 어머니 김영 집사 인터뷰



1. 축하합니다. 지은자매가 이번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김지은은 자매님에게 어떤 말씀을 본을 살아 키워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감을 드립니다. 작년 09년 2월 이맘 때 즈음, 1차 사법고시 준비로 초조함에 사로잡혀 시험일을 기다리던 때가 떠오릅니다. 딱 1년 전인데, 지금 합격의 상황에서 돌아보면, 그 힘든 고난의 긴 기간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은이가 정신이상증, 학교 강강신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강당을 지어 학교와 교회에 함께 공역하며 지역사회에 봉사 되는 모습의 회교를 건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로서 참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후 주님의 교회에 자선단체로 등록하였고, 주일예배 참석, 주일학교 교사의 교회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지은이는 정신이상증과 재학 중에 종교부장의 경험과 성경수업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졸업 후에 바로 배례를 받았습니. 법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4학년말쯤 본인이 스스로 사사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결심하였습니다.

2. 사법시험이란 기다림과 싸움인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시험공부 기간에 집을 떠나 생활동 고시촌에 있으면서 시험공부 기간에 집을 떠나 생활동 고시촌에 있으면서

많은 고시생이 다니는 '아름다운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시험의 불안감과 중압감을 예배의 성로 말씀과 중보기도를 기도할 때 힘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4년이 동안 암암자로 말에게 해 줄 수 있던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 유서를 가져다주고 교회의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 구역예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처음 기도 내용은 '시험에서 실수 안 해서 꼭 합격시켜주세요'라는 남바다의 반복되던 간구라, 나 자신이 들어오면 유서를 가져다주고 교회의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 구역예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처음 기도 내용은 '시험에서 실수 안 해서 꼭 합격시켜주세요'라는 남바다의 반복되던 간구라, 나 자신이 들어오면 유서를 가져다주고 교회의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 구역예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3.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봉사하실 건지? 시험을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고 싶은 시야로 바라볼 때 은혜의 삶이 열리게 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 일함으로 충실히 쓰임 받은 믿음의 말씀가로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4. 이번 합격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부분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여정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간구하고, 매달릴 수 없는 하나님 자녀 됨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고비 때마다 말씀과 기도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히 받지 않는 친정식구와 이웃들에게 합격소식을 전했을 때 '있을지 다니며 기도한 말씀이 있었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5.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에게 사법고시를 권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그 방식을 공개해주세요?

"고단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119:71"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 편집자주
이번호부터 각각 남녀 선교회를 방문하여 그 활동을 취재하여 게재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어촌 지역의 선교에 있어서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어려운 농어촌 교회에 대월 선교비를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께 미려어나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농어촌의 지역 특산물 판매와 직거래 장터 음식 판매를 통하여 농어촌 교회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외적인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돕는 손길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작년에는 택시기사 분들에게 복음전파를 위해 간식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를 가졌고, 결핵운동본부에서 북한에 결핵피해를 위한 모금운동을 돕기도 하였다. 지난주에는 장로회 신학대 졸업생에 식사봉사를 돕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활발한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각각 어린이집 취사봉사와 농촌단체 식사봉사를 새롭게 계획하고 있다. 미소한 열매(52-55세)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4여전도회,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3월 3일 수요일 첫 월례회로 모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취재/정리: 김광철 기자)

